

**The History of
Early Christianity**

초대교회사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교회의 교사들

- 바울의 저술
 -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 취급
(고안된 교리/조직적인 서신인가?)
- 사도시대 이후의 저술
 - '사도 교부들' (apostolic fathers)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교의서신, 비 교의서신

- 상황문서 내지는 단조로운 교의서신
 - 안디오의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
 - 고린도교인에게 보내는 서신(로마의 클레멘트)
 - 디다케/ 열두 사도의 교훈서 --- 생활과 예배 지침
 - 헤르마스의 목자 -----세례 후에 범한 죄의 용서
- 교리서신 (기독교 전체 교리 해석)
 - 이레네우스
 -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
 - 터틀리안, 오리겐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리옹의 이레네우스

- 생애
 - AD 130년경 소아시아 출생
 - 폴리갑 연관성: 저술에서 '노인' 또는 '장로' 가 폴리갑
 - 프랑스 리옹의 장로
 - 리옹의 감독(포티누스) 순교로 이레네우스가 감독
 - 202년 순교
- 저술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이영진 교수의 강의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명백하고 단순하게 이단 반박
- 현존하는 작품
 - . 사도적 가르침의 증명
 - 기독교 교리 강해
 - . 소위 지식에 대한 논박(or 이단에 반대하여)
 - 영지주의 반박
- 스스로를 '목자' 라고 생각한 이레네우스
 - 하나님을 '목자' 로 여김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저술에 나타난 사상
 - 창조관: 영지주의자--- 필요나 실수에 의해 창조
 - 이레네우스--- 목자가 양떼를 사랑하고
이끌듯이 피조계를 사랑
 - 인간관: 창조의 정수
 - 자유로운 존재 - 책임 있는 존재
 - 자랄 수 있도록 허용
 - 창조주와 친밀한 교제
 - 하나님은 참 목자처럼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-
 - 천사들도 능가하는 존재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- 천사와 신화

- 천사의 임시 지위: 인간보다 상위
-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상위
- 왕자(인간)의 첫걸음을 인도하는 선생의 기능
- 하나님의 '양손' 에 의한 교훈
 - '말씀' 과 '성령'
- '신화' 에 대한 정의
 - 인간을 보다 더 신성에 가깝도록 이끄심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- 타락론

- 천사들 중 하나가 (아담과 이브를) 범죄하게 했다
- 역사는 죄의 영향 아래 존재
- 역사의 실질적 단계는 죄의 결과
 - " 존재 자체는 의도
 - 성육신은 죄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(?)
 - 하나님의 애초 목표는 인류와의 결합
 - 죄의 결과가
 - 성육신에 죄 사함의 목적과
 - 사탄 박멸의 목적을 부과했다 (?)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- 기록론

- 성육신 이전과 최초의 범죄 발생을 구별과 통합
 - > 인류와의 보다 가까운 교제를 이끄신다
 - > 결과: 아담과 하와는 벌을
 - 뱀은 저주를
 - 하나님은 대속의 역사
- 이스라엘은 구속사에 있어서
 - > 하나님의 '양손' 이 역사하는
 -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모범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제2의 아담 예수
 - >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인류 창조
- 예전 - 세례는 '연합'
 - 성찬은 '성장'
 - > 교회는 몸이기에 '연합' 과 '성장'
- ※ 종합
 - 하나님 나라 확립 후에도 '목자' (하나님) 직무는 계속
 - '구속' 받은 인류는 교제
 - '신화' 는 영원히
 - 경륜이 역사를 통해 전개된다는 감각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

- 생애
 - 아테네 출생
 - 스승 판테누스에게 사사 받고 승계 (알렉산드리아)
 - 동부 지중해 연안, 시리아, 소아시아 활동
 - 215년 사망
- 알렉산드리아
 - 뮤즈의 신전 부속 도서관
 - 학자, 철학자, 모험가, 상인들의 집결지
 - 혼합주의의 절정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목회자가 아닌 사상가
 - 이교도 지성인들에게
 - 기독교가 불합리한 미신이 아님을 증명
- 저술과 사상
 - <이교도들에게의 권면>
 - 플라톤의 철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기독교임을 시연
 - 플라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진리
 - >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진리
 - 유대인에게는 율법이, 헬라인에게는 철학이
 - 선지/예언자들이 히브리인에게
 - 철학자들은 헬라인들을 위해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하나님은 유대인과 율법의 계약을 맺고,
헬라인과는 철학을 통한 계약을 맺었다
- 융합 방법(론)
 - 성경은 '종유적', '비유적' 이다
 - 성경은 하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
문자적 의미를 넘어 발견할 또 다른 의미
 - 신앙과 이성의 긴밀한 관계
 - > 이성은 증명할 수 없이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
- '제일 원리' 들 위에 그 논리를 전개한다
- >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영원히

는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'참 지식인' (true Gnostic)이 되어야 한다
- 자신을 '목자' 가 아닌 '진정한 지식인' 으로 역할
- 플라톤주의에 가까운 사상과 교리를 성경에서 추출
 - > 하나님은 불가해한 존재
 - >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신가만 말할 수.
 - > 이 형언할 수 없는 존재가 말씀/로고스를 통해
계시되었다.
 - 선지자/철학자들이 아는 진리는
이 말씀/로고스에서 추출한 것
 - > 그 결국이 성육신.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카르타고의 터툴리안

- 생애
 - 북 아프리카 태생
 - 40세에 로마에서 개종
 - 다양한 이단에 대항, 정통신학 옹호를 위해 저술
 - <세례에 관하여>
 - <부인에게>
 - <영혼의 증언에 관하여>
 - 법률가 또는 수사학 교육 이수자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저술과 사상
- <영혼에 관하여>
 - 영혼을 증인석에
 - 영혼이 '본질상 기독교인'
 - > 개종의 거부: "영혼이 눈이 멀었다"
- <이단들에게 불리한 취득시효>
 - '취득시효' (praescriptio)의 두 의미
 - . 고소할 권한이 없음을 증명 (재판취소)
 - . 장기점유의 항변 (사실 권리)
 - > 교회와 논쟁을 벌일 자격조차 없음
 - > ※ 성경이 교회가 소유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대다수 유대교에서 기록한 성경을 교회가 소유(권 주장)
- 소유권 주장 방식
 - 터틀리안의 논변 외에
 - 베드로-바울의 시대부터 2세기 말까지의 감독계보
 - > 사도교회
 - 사도교회들이 사용한 성경, 그리고 해석
 - > 소유 권리
- 소유 박탈의 원리 --- > 성경 해석의 불법
- 교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
- 유일한 존재임을 역설 ----> 16세기 가톨릭의 논리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터틀리안과 클레멘트의 차이
- 기독교가 진리임을 발견한 후에는,
 - 또 다른 진리를 찾기 위한 시도조차 포기할 것
- 다른 진리의 추구 ---- 진정한 신앙의 결여
- 기독교 교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도는 허락
- 공론에 불과한 이교도 철학은 부정
- 우리가 물어야 할 것,
 - "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?" (x)
 - "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?" (o)
- >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원리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**터틀리안과 이단 몬타누스**
- 207년경 이단 몬타누스 운동에 합류
- 몬타누스(155년 개종 인물) 사상
 - 성령 충만, 예언 활성화(프리스킬라, 막시밀라)
 - 자신들을 통한 새로운 시대
 - 엄격한 도덕적 생활
- 예언 때문이 아니라 '자신들을 통해' 마지막 시대 도래
- 주장으로 이단 정죄
- 성령 강림으로 진정한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신약의 사건들의 중요성을 감소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터틀리안은 왜 몬타누스에 합류했나.
 - > 엄격함에 매료
 - > 완전한 체제 추구
- '터틀리안파' 설립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**후기 변증**
- <프락세아스에 대항하여>
 - > 삼위일체 및 기독교 논쟁에 중요한 의미 최초 사용
 - > 프락세아스는 가상의 인물 (칼릭스투스 감독?)
 - > 성부수난설 혹은 양태론 비판
- “프락세아스는 로마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탄을 섬겼다. 즉 예언을 폐하고 이단을 도입했으며, 성령을 추방하고 성부를 못 박았다.”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“하나의 본체에 세 개의 위격”
- “한 위격” 과 “두 본체” (두 본성/ 신성과 인성의)
- 정통신학의 표상이 된 용어들을 처음 사용
- 라틴어를 사용한 최초의 신학자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

■ 생애

- 클레멘트의 제자
- 데메트리우스가 예배신자 교육 교사로 임명
- 고전 철학자 운영 학당과 유사
- 이교도(상류 계층)에게 강의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■ 저술 및 사상

- <켈수스에 대항하여>, <제일 원리들에 관하여>
- 플라톤주의와 기독교 신앙 연결 시도
- 영지주의에 대한 부정
- 사도들의 전통을 부분적으로 수정
 - 인간 창조 두 이야기
 - 1)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
 - “창조하다” (희랍어)
 - 2) 아담을 창조하고, 갈비뼈로 이브를 만드셨다
 - “형성하다” “형태를 주다”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:: 최초의 창조는 순수하게 영적인 것이다.
 -- 몸을 갖지 않은 영들이었다
 -- ‘남자와 여자’ 성별 없이 기록
 ----- “창조하셨다”

:: 물질적인 창조로서
 타락한 영들을 위한 임시 처소
 가장 아래는 악마, 나머지는 인간 영들
 (타락한 선재 영들)
 ----- 이로써 현 인간들이 가진 몸들을 만드

심
 -----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“영성하여” 남자로, 여자로.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- 영혼 선재설
 ::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 순수한 영들(인간론)
 :: 플라톤주의적 전통

-- 사탄은 우리와 같은 영적 존재
 -----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궁극적으로는
 사탄도 구원받을 것이라는,
 ----- 일체의 피조 세계는 모든 존재가
 순수한 정신으로 존재하는 원래 상태로
 귀환될 것이라는 주장
 ----- 교회 전통이 아닌
 개인의 의견으로 제한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교사들의 가르침의 결과

■ 이레네우스

--- 소아시아와 시리아에서 지배적인 신학에 반영
 --- 하나님이 행하신, 행하고 계신, 장차 행하실 것에 관해.
 --- 구원은 사망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
 세례에 의해 확립, 성찬에 의해 양육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클레멘트에서 오리겐까지
 - 알렉산드리아에 영향
 - 기독교와 가장 훌륭한 고전 철학의 연결
 - > 불변의 철학적 진리 추구
 - 구원이란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영적 세계로 돌아가는 것
- 터툴리안
 - 서방 세계와 신학에 영향
 - 율법주의, 도덕적인 문제 관심
 - 구원이란 도덕적 순결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
History of early Christianity

- 분열
 - 서방(라틴어):
 -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방법에 관한
 - 거듭 논쟁
 - > 16세기 구원에 있어
 - 행위의 역할에 관한 논쟁으로
 - 동방(그리스어): 이레네우스의 전통과
 - 오리겐의 철학적 관점의 차이로 분열

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
